

우리는 물사랑 가족



흐르는 강의 모태 숲이 시민을 부른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글 이명혜 _ 프리랜서 사진 설 Studio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를 지나 한강과 만나는 지천이다. 21세기의 탄천은 도시의 중앙부를 흐르며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때 오염된 강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지만 맑은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의 모임인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천의 시작은 숲

분당의 상탑초등학교 건너편으로 야트막한 산이 넓게 펼쳐져 있다. 빌라 옆으로 난 길을 10여 미터 오르면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라는 뜻말이 사람들을 반긴다. 아파트와 빌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반딧불이라니. 그러나 뜻말을 지나 맹산에 한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 반딧불이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각각 각색의 야생초와 다양한 나무가 뿔뿔한 숲. 높고 깊은 산은 아니지만 맹산은 숲이 울창한 산이었다. 그 숲 사이로 계곡물도 요란스레 흐르고 있었다. 활기차게 흐르는 계곡물은 야탑천을 지나 탄천으로 흐르고 다시 한강과 만나 유유히 흘러 바다로 간다.

“하천의 시작은 숲이에요. 숲을 살리고 습지를 살리는 것에서 하천살리기가 출발하는거죠.” 김경희 사무국장은 강의 발원

지인 숲을 보호함으로써 하천보호가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올해 제 3회 강의 날 대회에 ‘흐르는 강의 모태, 숲이 시민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참여하여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야탑천 복개반대운동과 맹산살리기 운동이 높이 평가되어 전국 50여 개 하천보전 활동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수상내용으로 일본에서 사례발표를 갖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숲과 하천을 연계하여 숲 보존사업을 벌인 사례가 없다며 새로운 시각이라고 평가하시더군요. 이제 강 살리기가 단순히 강 자체만이 아니라 유역지킴이를 통한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합니다.”라며 김경희 사무국장은 유역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탄천을 자정능력이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1994년 5월 탄천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우수관을 탐사하다가 만든 자생적인 시민단체다.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단계에서부터 우수관과 오수관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분당 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자 분당을 흘러 지나가는 탄천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내 고장의 하천이 왜 오염되는가. 혹시 빗물만 흘러야하는 우수관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사람들이 모였다. 우수관을 130여 차례 탐사해보니 설계와 달리 시공단계에서 잘못된 연결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시에 요청해 잘못된 수분을 시정하자 탄천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 목표는 탄천을 자정능력이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텀벙거리며 물장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겠죠.” 이들은 사람들이 하천과 친하게 지내는 ‘하천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당천에 버드나무 심기 행사도 하고 매년 스승의 날이면 토끼풀로 화관만들기 행사를 벌인다. 또한 맹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한 구좌 갖기 운동’을 펼쳐 6천만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어린이는 미래의 환경지킴이

“하천보호활동을 하다 보니 결국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하천과 늘 함께 하는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하천사랑의 출발점이지요.” 1998년 문을 연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는 생태환경교육과 함께 자연환경보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또 하나 중요한 활동은 청소년 환경모임인 ‘숲내(탄

천)청소년지킴이단’의 교육이다. 숲내(탄천)청소년지킴이단은 성남시 전체에서 초·중·고등학생 1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수질탐사, 식생조사, 우수관·오수관의 체계, 하천복개의 문제점 등 하천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맹산자연학교 자원활동가 모임인 ‘맹자모’는 성남 시내 학교의 환경교육을 맡고 있다. 맹자모에서 활동하는 20명의 자원활동가는 생태안내자 교육을 받은 생태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하천,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계획하고 직접 수업도 한다. 어린이 교육을 통해 지역 하천이 보호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김정현 씨는 “자연은 늘 접하던 것이었지만 교육을 받고 나니 더욱 새롭게 느껴지고 소중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통 생태학교를 2년 이상 따라다녀야 진짜 생태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들의 갈 길은 멀지만 자녀들과 산과 강을 찾으며 생활 속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인다.

맹산에 가면 다락논과 ‘개구리 놀이터’가 있다. 개구리 놀이터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의 합창을 감상할 수 있다. 반딧불이가 알을 낳고 서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다락논에 엇그제 고라니가 다녀갔나 보다. 모를 뜯어먹었는지 뽀뽀하고 쓰러진 모가 여럿 발견되었다. 개구리, 잠자리, 고라니, 풀꽃과 나무, 도시 바로 옆일지라도 숲에서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맹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맑게 흐르는 물 때문인 것을. 사람도 그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